사랑의 약속 이 땅에 행복의 열매로 주렁진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약속은 흔히 있는 일이다.

서로의 신뢰와 친분관계를 두터이 하는것이 약속이여서 사람들은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평범하고 례사롭게만 대할수 없는, 인간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하고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소중한 약속이 이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고동치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과 하시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서 이 나라의 누구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더 잘 알게 되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의 세계를 더 깊이 느끼게 된다.

언제나 조용히, 소문없이 찾아오시여 친자식의 생활을 보살피시듯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려주시고 보살펴주시고도 더 주고싶으신 사랑을 약속으로 남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지 다 아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주체101(2012)년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만복을 누리게 하실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인민들과 하신 소중한 그 약속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단 하루의 휴식도,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는 위민헌신의 려정을 이어오시였다.

그 나날에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과 문명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주의선경거리들과 인민의 리상향으로 천지개벽된 삼지연시,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들에 솟아난 행복의 별천지들,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과 련포지구의 대규모온실농장들, 개건현대화된 수많은 공장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도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이 어려있다.

자신께서 직접 나가보아야 로동자합숙건설에 대한 표상을 가질수 있다고 하시며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합숙부지도 잡아주시고 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라는 명판도 자신께서 친필로 써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공장합숙이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여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최고사령관이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으며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여 친필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라는 명판도 써주시였다.

수도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솟아난 아이들의 궁전이다.

서방세계가 《국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는 집없는 아이들, 부모잃은 어린이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부모잃은 아이들이 한점의 그늘도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주체103(2014)년 2월초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만을 알게 하자고 하시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명당자리에 육아원과 애육원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여 건설과 관련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이 솟아올랐을 때는 원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되뇌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삼으시는 어버이만이 하실수 있고 지킬수 있는 사랑과 정의 약속이다.

인민이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인민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온갖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사랑과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다.

얼마전 동해기슭에 솟아오른 련포온실농장도 인민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해 솟아난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그날에도 시간이 바빠 학원을 다 돌아보지 못하였는데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과 하시는 약속.

그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의 최고정화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과 하시는 사랑의 약속에 떠받들려 이 땅에는 행복의 별천지가 펼쳐지고 인민이 누릴 만복의 레일이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

◎위민헌신의 길에서◎

꼭 있어야 할 장소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야외빙상장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빙상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미흡한 점이 없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스케트보관실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스케트보관실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자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누구에게라 없이 물으시였다.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것으로 하여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외빙상장은 대중스케트장이기때문에 스케트를 내주는 곳도 잘 꾸리고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장소도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만이 꽉 차있음을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였다.

몸소 들어보신 물고기랭동블로크

주체108(2019)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와 한 물고기가공사업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랭동저장고에 들어서시여 가득 들어찬 물고기를 기쁨속에 보고 또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물고기랭동블로크도 들어보시였다.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물고기가 산같이 쌓인 그 광경이 얼마나 반갑고 흐뭇하시였으면 그이께서 찬 기운서린 저장고를 돌아보시였으랴.

랭동저장고들마다 차곡차곡 높이도 꽉 들어찬 물고기를 보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이미 전에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보고 금피를 올려쌓은것같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이상 적중한 비유가 없을것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강성부흥의 길

풍요한 가을이다.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가을걷이를 끝낸데 이어 벼단운반과 낟알털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특히 황해남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새 농기계를 리용하여 낟알털기를 앞당겨나가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 농기계들이 은을 내고있는것이다. 황남땅에 울리는 새 농기계들의 힘찬 동음은 사람들에게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고있다.

자력갱생, 이 말속에는 자존과 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공화국인민이 항일의 혈전만리와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올수 있은것은 바로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기때문이다.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은 자존과 자립이야말로 민족운명개척의 기치, 강성부흥의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인 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계속 높이 휘날리도록 이끌어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12월 한겨울의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이다.

이날 거창하게 솟아오른 언제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며 멋있소, 대단하오,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오, 대자연을 마음대로 길들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산군민발전소의 언제에 새겨진 자력갱생이라는 대형글발을 가리키시며 정말 힘이 난다고,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슴배여있는 발전소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땅속을 달리는 지하전동차,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비롯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무수한 창조물들이 태여났다. 그뿐이 아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개건현대화되여 명제품, 명상품을 팡팡 생산하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올해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진 대규모남새생산기지 련포온실농장의 장쾌한 경관은 공화국의 자강력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진정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겹쌓이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 승리와 기적만을 떨쳐가고있다.

리 경 미

교육이 민족의 래일을 담보하도록

공화국에서 해마다 10월은 학교지원월간이다.

10월이 오면 온 나라가 떨쳐나 교육사업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지성들에 떠받들려 한해가 다르게 교육조건과 환경이 현대적으로 일신되고있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교육발전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삼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화국처럼 교육사업을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하고 전략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온 나라가 학부형이 되여 교육사업에 힘을 넣는 그런 나라는 없다.

결코 무엇이 남아서가 아니다.

공화국은 장장 70여년에 걸치는 오랜 세월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사상초유의 무수한 시련의 고비를 넘어야 했다.

하다면 어찌하여 이런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는가.

공화국의 교육이 걸어온 행로를 돌이켜보느라면 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건국의 초행길에 새겨진 《첫 의정》에 대한 이야기, 해방후 농민들이 바친 애국미를 김일성종합대학건설에 쓰도록 하신 가슴뜨거운 사연,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후 재더미우에 학교부터 세워주시고 세상이 보란듯이 웅장한 소년궁전도 세워주신 사랑의 이야기, 나라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민족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시며 몸소 한자한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작성하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

공화국의 아이들 누구나 즐겨 부르는 《장군님과 아이들》이라는 노래에 담겨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전설들도 되새겨진다.

1993년,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였던 그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여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그리도 밝은 웃음을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

한해에도 3차례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시여 세계일등급의 전자도서관과 수영관을 선물로 안겨주시고 사랑의 친필서한도 보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오늘 공화국의 교육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온 나라에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을 과학교육의 해로 또다시 정해주시고 당의 새로운 로선과 방략을 제시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독자적인 안건으로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였으며 평양건축대학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몸소 명예총장이 되여 대학사업을 적극 밀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새해정초여서 찾으셔야 할 곳, 만나셔야 할 사람들이 그리도 많았던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발걸음따라 전국의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고 사범교육의 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지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고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일어났다.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과 환경은 거름과 같다고 그 중요성도 강조해주시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차이도 결국은 교육조건과 환경의 차이로부터 생긴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의 교육기관들을 찾고찾으시며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교육을 공화국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 공화국을 세계적인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일떠세우실 경애하는 그이의 웅대한 구상따라 나라의 교육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참으로 공화국의 교육발전사는 절세위인들의 커다란 관심과 세심한 령도, 다심한 미래사랑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교육은 후대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고 휘황한 래일을 마련해나가는 사업이다.

하기에 절세위인들께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힘겨운 때일수록 더더욱 교육사업에 마음쓰시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전설들을 끊임없이 수놓아오시였다.

진정 오늘날 이 땅 그 어디서나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교육혁명의 불길은 절세위인들께서 지펴주신 강국건설의 봉화이다.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교육은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담보해나가는 가장 우월한 교육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손 지 성

수필

아이들이 날리는 국기

얼마전 TV를 보던 나는 한 소녀의 모습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분쟁의 폭풍에 떠밀려 가랑잎같은 피난선에 오른 소녀, 그의 고사리같은 손에는 자기 나라의 국기인듯한 기발이 쥐여져있었다.

망망대해를 떠돌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피난선은 그 나라의 이민정책에 의해 닻을 내리지도 못하고 또다시 바람세찬 날바다로 향방없이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제 나라에서는 지켜주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받지 않아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이 된 불쌍한 소녀.

과연 그 소녀가 가닿을 삶의 기슭은 어데일가.

그래도 한가닥의 희망인듯 국기를 꼭 쥐고있는 소녀, 하지만 그 국기는 이미 자기의 빛을 잃었다.

사람들은 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간다. 그 국가는 자기 국민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쟁과 분쟁의 파도를 막지 못해 인민들에게 재난을 가져다주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살길 찾아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로 떠나게 하였으니 그런 국가, 그런 국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이민의 행렬에 소녀도 끼여있었으니 그가 든 국기는 살려달라는 애달픔을 하소하고 조국이 버린 어린 넋을 누구든 안아주길 바라는 애절함에 떨고있었다.

빛을 잃은 국기를 쥐고 서글픈 눈물을 머금고있는 이국의 소녀를 보느라니 얼마전 하늘도 땅도 람홍색공화국기로 뒤덮였던 9월경축의 밤이 떠오른다.

그중에서도 인상깊었던것은 손에손에 든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면서 노래와 춤을 마음껏 펼쳐보이며 관중들의 열기띤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이였다.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
너보다 자랑스런 기발 없어라
…

내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랑,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함과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랑랑한 노래소리에 함뿍 담겨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노래, 그것은 다름아닌 고마운 우리 국가가 안겨준것이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고 최강의 국력을 마련하여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과 전쟁책동속에서도 국권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의 인민이고 그 후손들이여서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자그마한 그늘도 찾아볼수가 없다. 누구나 기쁨과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들고있다. 불행을 모르는 저 천진란만한 아이들이 TV에서 보는 자기또래 불쌍한 아이들의 마음속고통을 리해나 할수 있을가.

수천만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이 나라에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제일 강대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여주시여 국기도 자기의 존엄을 세기의 하늘가에 떨친다.

하기에 경축공연무대에 나선 우리 아이들도 부강하고 번영하는 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비낀 국기를 한껏 휘날리며 노래를 불렀으리라.

…

찬란한 해와 별 비쳐 밝아오는
우리 아침
펄펄펄펄 휘날려라 우리의 기발

위대한 수령을 친아버지로 높이 모시여 맑고 푸른 하늘아래 만복의 꿈을 꽃피워가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창창한 노래소리가 부강번영하는 공화국의 힘찬 발걸음소리로 메아리치며 나의 가슴을 벅차게 격동시켰다.

안 권 일